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42-43)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 외르크 브로이 1세, 부다페스트, 헝가리

[제1독서] 2사무 5,1-3

[제2독서] 콜로 1,12-20

[화답송] 시편 122(121),1-2,4-5
(◎ 1 참조)

[복음 환호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복음] 루카 23,35ㄴ-43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74] 참 왕이신 그리스도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154] 주여 어서 오소서
 - 파견성가: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35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것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이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였다.

†묵상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심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이(제1독서) 당신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기(제2독서)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물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당신 백성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왕권과는 무엇인가 다른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만물의 임금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만물이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신 것은, 오로지 당신 피로 모든 이의 죄를 대신 기워 갚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하느님의 계획이었고, 십자가는 바로 세상 창조 때부터 진행된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된 장소였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만물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참된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의 왕직에 동참합니다. 곧,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염철호 요한 신부)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16세기 독일화가 외르크 브로이 1세(Jörg Breu the Elder, 1475-1537)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는 1496~1502년에 오스트리아 지방을 여행하며 활동하다가, 1502년부터 아우크스부르크에 정착하여 여러 제단화를 그렸다. 『아구스바히제단화』(1501, 뉘른베르크 게르만 미술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그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인간 파악과 풍경 묘사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1524년에 그렸고 부다페스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은 마태오 27,32-44; 마르코 15,21-32; 루카 23,26-43; 요한 19,16-27이 그 배경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 외르크 브로이 1세

네 복음사가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타라는 곳에 이르러 두 강도 사이에 세워졌다. 브로이의 작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다리꼴로 수직으로 세워진다. 이 때 가시관을 쓰고 손발이 못 박힌 예수님께서서는 극도로 고통스러워하신다. 경직된 예수님 몸의 근육과 표정이 예수님의 고통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둑들의 발은 작은 지지대에 못 박혀 있고, 몸은 십자나무에 밧줄로 묶여 있으며, 손은 십자가의 수평 들보 뒤로 묶여 있어 덜 고통스러워 보인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독하며 비아냥거리고, 다른 강도는 회개하며 예수님께 자비를 청한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을 거는 이가 회개하는 강도이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아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39-43)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군사들의 얼굴과 표정은 짐승처럼 포악하고 험상궂게 생겼는데, 이런 표현은 플랑드르 회화의 특징이다. 지나가던 자들도 손가락질을 하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마태 27,40)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마태 27,41-43) 그들의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옷이 그들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두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우리도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느님께 맡길 수 있을까? 배경의 예루살렘 도성은 닫혀 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립을 더욱 느끼게 한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FEAST OF CHRIST THE KING

November 24, 2019

Christ is the King!



Today is the feast of Christ the King. When Jesus was on earth, many of His followers thought that He was going to be a normal sort of king, with a kingdom and soldiers and everything. Is that what Jesus did?

Before He died, Jesus said that His kingdom was not in this world. Do you know where Jesus' kingdom is?

Did you know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not just in Heaven? It's in the soul of every person who follows Jesus.

Do you try to be like Jesus? Is He your king?



<오마리아 주말복음/바오로딸 콘텐츠>

Here is a little prayer you can say to Jesus any time you think of Him, maybe every time you see a picture of Him:

*Jesus, you are my King and my God
and I love you.*

Help me to be your good servant!

Make sure you do something special today to celebrate the feast of Christ the King!

<<https://www.thekidsbulletin.com>>

Christ the King WORD SEARCH

See if you can find all the words from the word list. Then put the leftover letters in the spaces to find a little prayer you can say any time.

Find the names in the list. Word directions: → ↓ ← ↑ ↗ ↘

J E C H U R C H S P
 U T H R O N E S H E
 W O R L D L O V E A
 Y F I J U D G E A C
 J E S U S O O U V E
 A A T S R M E K E C
 M R Y T K I I I N R
 B E G I N N I N G E
 H A P C L I R G O A
 I R O E O O U D D T
 G T O N R N L O G O
 H H R E D E E M E R

“ _____ , _____
 _____ !”

WORD LIST

- | | |
|-----------|----------|
| BEGINNING | JUDGE |
| CHRIST | JUSTICE |
| CHURCH | KINGDOM |
| CREATOR | LORD |
| DOMINION | LOVE |
| EARTH | PEACE |
| FEAR | POOR |
| GOD | REDEEMER |
| HEAVEN | RULE |
| HIGH | THRONE |
| JESUS | WORLD |



SAINT OF THE DAY

St. Andrew the Apostle

Feast | November 30



St Andrew the Apostle, stained glass window in the Rollins Chapel of Dartmouth College (1885)

St. Andrew lived at the same time as Jesus. He was a brother of St. Peter, and they both were fishermen. At first Andrew was a disciple of St. John the Baptist, but then he found Jesus and followed Him.

[Matt 4:18-22, Mark 1:16-20, John 1:35-42]

Jesus chose Andrew as one of the twelve apostles.

Andrew was the one who brought the boy with loaves and fish. (John 6:8)

Andrew stayed with Jesus while He did his work on

earth. After the Ascension and Pentecost, St. Andrew went out to preach the faith. Andrew is said to have been martyred by Crucifixion in Patras. He was tied to a cross in the shape of an X. (Today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St. Andrew’s Cross.”)

It is believed Andrew requested to be crucified this way, because he deemed himself “unworthy to be crucified on the same type of cross as Jesus.” He preached from it for two days before he died.

St. Andrew is the patron saint of fishermen and singers. He is also the patron saint to several countries and cities including: Scotland, Romania, Russia, Ukraine and Patras.

We don’t know very much about the life of St. Andrew except that he was faithful Apostle of Jesus and one of the first missionaries of the church. He began as a poor fisherman. We can learn from his story that Jesus calls us all to be saints, no matter where we’re from.

<<https://www.thekidsbulletin.com>>, <<https://Catholic.org>>, <Wikipedia, St.Andrew>

하상회 11월 월례회

하상회는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 11월 월례회를 가졌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위령 성월을 맞아 기도를 하자”고 전하고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축하했다. 하상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에 있을 연말 파티에 대해 논의했다.

안나회 11월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가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대림절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일을 맞은 자매들을 함께 축하했다. 12월 월례회는 하상회와 함께 할 계획이다.

Recycle(재활용품) 수거 안내



YES!

- 빈 병
- 빈 캔
- 종이류

NO!

- 유리병
- 비닐봉지
- 종이컵, 스티로폼 컵
- 카드보드

- 종이와 플라스틱 물병은 반드시 비운 후에 리사이클 수거함에 넣어주시요
- 일반 쓰레기는 리사이클 수거함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거함 위치 : 친교실, 성당 현관, 하상관 •



What is the meaning of Christ the King?



Christ the King is a title of Jesus Christ. It refers to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where the Christ is imagined a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성경으로 감도된 신앙인의 삶과 교회의 사명

하느님의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테살 2,13 참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3.14)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 때가 차자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께서 일으켜 주시는 감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학문과 과학의 지식들은 우리가 이해한 만큼 활용하지만,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인식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활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해하려는 태도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맞아들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당이나 교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 공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필요하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교회 활동의 이 한 부분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교회 활동 전체를 감도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사 집전, 사회 복지 활동, 친교와 기도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씀의 감도에 이끌려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성경 곧 말씀이 교회 활동의 전체를 감도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주님의 말씀, 73항 참조).



성서 주간 |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감도되려면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야 그분께 이끌려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고 이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고 자라게 하듯,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가 앞을 보고 죽은 소녀가 되살아나고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이 나았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희망을 일깨워 주시어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친구요 형제라고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삶의 보람과 고통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목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의 길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말씀의 감도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2019년 11월 24일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대림 특강

- 1 "로고스와 스토리를 통한 그리스도와 대림의 이해"
 - 일시 : 12월 1일(일) 오후 1시 - 3:30
 - 강사 : 전동혁 베드로 신부 (신시내터 한인성당 주임신부)
- 2 "깨어 준비하는 기다림"
 - 일시 : 12월 8일(일) 오후 1시 - 3시
 - 강사 : 권오영 프란치스코 신부 (조지 워싱턴대 박사과정)

축하드립니다!

성 안드레아 영명 축일(11월 30일)을 맞으시는 백인현 주임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11 추수감사절 하상 성인학교 휴강

• 휴강일 : 11월 26일(화), 11월 29일(금)

12 하상 성인학교 종강식 및 발표, 전시회

• 발표·전시회 : 12월 1일(일) 오전 11:30 (친교실)
 • 종강식 : 12월 6일(금) 오전 11:50 (친교실)
 • 교우분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3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 12월 1일(일) 오후 3:30 - 7시 (친교실)
 • 대상 : 행동단원, 협조단원

14 구역 임원교육

• 일시 : 12월 1일(일) 오전 11:30 (B-1,2)

15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2월 1일(일) 오후 1시

16 2019 - 2020년도 첫 영성체반 신청

• 대상 및 신청 : 3학년 이상 학생들, 11월 24일까지
 오전 9:30-오후 1:30 (하상관 로비)

17 청년들을 위한 한글학교 개강

• 일시 : 매 주일 오전 11:40 미사 후 (하상관 #107)
 • 담당 교사 : 송정아 마리아 (703)505-6974

18 ME 주최 2019년 성탄 파티

• 일시 : 12월 8일(일) 오후 12시- 5시
 • 장소 : Westfield Golf Club (Clifton, VA)
 • 참가비 : 1인 \$55(Steak/Fish선택, 와인 포함)
 • 등록 : 11월 24일(일), 12월 1일(일) 미사 후 친교실
 • 본당 교우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 문의 : 김창호 요안 비안네 (703)830-5373

19 2020년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및 봉헌초(미사에 사용), 병초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차 헌금 •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을 위한 2차 헌금에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2월에는 그동안 밀린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연중 제 34주간: 지혜 15-19, 필리 4**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28일(목) 오후 5:00-6:00
 11월 29일(금) 저녁 8:00-9:00
 12월 1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위대한 성인들 /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헬레나 성녀-윤원진 비안네 신부

AM 1310 라디오 채널에서 가톨릭을 알리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 11/27(수) 오전 6:15-6:45
- 11/30(토) 오전 8시-8:30

• **故 차동엽신부님의 강의 '그리스도인의 희망'**
 ※ 카카오톡에 '라디오 워싱턴 AM1310'을 친구로 추가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11월 17일(연중 제33주일)

주일헌금	\$7,672.83
교무금	\$14,065.00
교무금(크레딧카드)	\$5,760.00
특별헌금	\$1,100.00
2차헌금	\$0.00
합계	\$28,597.8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NG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란시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재(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젠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주(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브리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래(안나), 이영민 (다윗)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루치오), 이철(루시아), 임현석(아비보),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박철(프란치스코), 추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야사세오), 제민서 리(호산), 안병진(다니엘)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 모임
11월 24일(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요한회 총회(오전 11:30, B-3), 루카회(오전 11:30, B-2), KofC 모임(오전 11:30, B-4),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바오로말 도서선교, 청년 성서모임 감사의 날(오후 1시), 빠뜨리치안회 모임(오후 2시, A-1)
25일(월)	연중 제3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26일(화)	연중 제34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성경 기도회(오후 8시), 하상 성인학교 휴강
27일(수)	연중 제3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28일(목)	연중 제3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추수감사절 사무실 휴무
29일(금)	연중 제34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사무실 휴무, 하상 성인학교 휴강
30일(토)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하상 한국학교 휴강
12월 1일(일)	대림 제1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하상 성인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오전 11:30, 친교실), 성모회(오후 1시, B-1), 레지오 연차 친목회(오후 3:30, 친교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HYN 부동산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메디케어(Supplement, Advantage C, Part D 포함) 건강/생명보험 가입 및 신청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광고 접수중!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6시까지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